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09월 평가원]

[68%]

<sup>1</sup>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sup>2</sup>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sup>3</sup>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④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sup>4</sup>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⑤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sup>5</sup>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sup>6</sup>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 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sup>7</sup>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③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체가 깔려 있다. <sup>8</sup>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sup>9</sup>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sup>10</sup>동시에 이는 기억과 **④ 포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sup>11</sup>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sup>12</sup>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sup>13</sup>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sup>14</sup>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sup>15</sup>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계몽 운동기에 들어서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sup>16</sup>박은식, 신채호 등 개화기 지식인들이 ‘민족정신’에 눈뜨면서 재발견한 이순신이나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은 이제 ‘충군’이 아닌 ‘애국’을 **③ 지상** 과제로 삼는다. <sup>17</sup>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sup>18</sup>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1.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함.
- ② ㉡: 본을 받을 만한 대상.
- ③ ㉢: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
- ④ ㉣: 사물의 결과 속 또는 안과 밖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⑤ ㉤: 가장 높은 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09월 평가원]

[31%]

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 ② ㉡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③ ㉢ :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 ④ ㉣ :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
- ⑤ ㉤ :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름.

<sup>[1]</sup>우리는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이 차에 탄 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목적지에 내리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는다. <sup>[2]</sup>그가 복잡한 도심에서 주차할 곳을 우연히, 그리고 매우 쉽게 찾은 장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sup>[3]</sup>실상 어느 관객도 그와 함께 차에서 무리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sup>[4]</sup>이처럼 우리는 이야기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영화상의 생략을 기꺼이 수용한다. <sup>[5]</sup>극적인 전개를 위해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거나 연인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절한 음악을 삽입하는 것, 카메라의 움직임이 유발하는 현장감과 정서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sup>[6]</sup>우리가 흔히 영화를 사실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화의 재현 방식에 반응해서 영화 속 내용을 현실처럼 보는 데에 동의함을 뜻한다. <sup>[7]</sup>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다. <sup>[8]</sup>우리는 영화가 현실의 복잡성을 똑같이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영화 역시 굳이 그러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sup>[9]</sup>이렇게 관객과 감독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를 ‘영화적 관습’이라고 한다. <sup>[10]</sup>영화적 관습은 영화사 초기부터 확립돼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는다. <sup>[11]</sup>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관객은 영화적 관습을 익히고, 감독은 그것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친숙함을 제공한다.

<sup>[12]</sup>확립된 관습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sup>[13]</sup>그런데 프랑스의 누벨바그 감독들은 고전적인 영화 관습을 파괴하며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하였다. <sup>[14]</sup>이들은 불필요한 사건을 개입시켜 극의 전개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단서나 예고 없이 시간적 순서를 뒤섞어 사건의 인과 관계를 ㉣**교란**하기도 했다. <sup>[15]</sup>이들은 자기만족적이고 독창적인 미학적 성취를 위해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였다.

<sup>[16]</sup>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관습 비틀기가 ㉤**수시**로 일어난다. <sup>[17]</sup>이는 흥행을 목적으로 오락적 쾌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누벨바그의 관습 파괴와는 차이가 있다. <sup>[18]</sup>가령, 근래 액션 영화의 감독들은 악당의 죽음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악당을 다시 살려 내어 갈등을 또 한 번 증폭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sup>[19]</sup>처음 이러한 관습 비틀기를 접한 관객들은 당혹스러웠겠지만, 일단 여기에 익숙해지면 느긋하게 ‘악당의 귀환’을 기대하게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년 수능]

[27%]

3.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재앙과 복을 아우르는 말.
- ② ㉡ : 군주가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림.
- ③ ㉢ : 거친 땅이나 버려진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듦.
- ④ ㉣ :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⑤ ㉤ : 어떤 경향이나 기색 따위가 뚜렷함.

<sup>1)</sup>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産)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天道)는 멀고, 인도(人道)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sup>2)</sup>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 변화 또한 인간의 ㉠**화복(禍福)**과는 거리가 멀었다. <sup>3)</sup>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 것이다. <sup>4)</sup>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 정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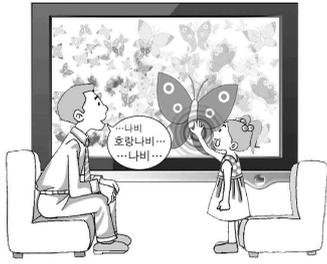
<sup>5)</sup>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sup>6)</sup>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산이 ㉡**집정(執政)**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다. <sup>7)</sup>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산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sup>8)</sup>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하였다.

<sup>9)</sup>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sup>10)</sup> 이에 따라 백성들은 ㉢**개간(開墾)**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계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民富)를 국부(國富)로 연결시켰다. <sup>11)</sup>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정(鼎)<sup>1)</sup>에 새김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 <sup>12)</sup> 성문법 도입은 귀족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므로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하였다.

<sup>13)</sup> 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자산의 개혁 조치에 따라 정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sup>14)</sup> 그리고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 도입은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백성의 ㉣**위상(位相)**을 높였다. <sup>15)</sup> 하지만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力治)의 가능성이 ㉤**농후(濃厚)**하였고, 결국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

1) 정 : 발이 셋이고 귀가 둘 달린 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909월 평가원]



<sup>[1]</sup>기차 안에서처럼 두 개의 의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옆에는 스크린이 창문처럼 설치되어 있다. <sup>[2]</sup>관객들이 이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 대화 속에 단어들에 상응하는 이미지들이 화면 가득히 나타나 입체적 영상을 만들어 낸다. <sup>[3]</sup>이는 소머러와 미그노뉴의 디지털 아트 작품인 ‘인터넷 타기’에 대한 설명이다. <sup>[4]</sup>이와 같은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은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sup>[5]</sup>이는 분명 종래의 예술관에 대한 도전이다. <sup>[6]</sup>종래의 예술관은 수용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sup>[7]</sup>즉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예술 이외의 모든 관심과 욕구로부터 **㉠ 초연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sup>[8]</sup>더구나 이러한 관조적 태도와 함께 예술 작품 자체도 모든 것에서 벗어난 순수한 객체가 됨으로써 이제 예술은 그 어떤 **㉡ 권위**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율적 영역이 된다. <sup>[9]</sup>이 때문에 종종 예술은 쓸모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현실의 모든 **㉢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 공간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sup>[10]</sup>그렇다면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이 예술을 상호 작용 공간으로 만들 경우 미적 해방 공간마저 일상적 삶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예술 이외의 관심과 욕구로 얼룩지고 마는 것인가? <sup>[11]</sup>넓게 보자면 인간은 세상과의 **㉣ 부단한**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sup>[12]</sup>상호 작용이 외적·내적 요인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을 낳을 때, 인간의 경험은 대립과 분열 속에 빠지며, 이것이 지속될 때 삶은 위기를 맞는다. <sup>[13]</sup>반면 각각의 상호 작용의 고유성이 보호되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전체 속에서 통일될 때 인간의 삶은 **㉤ 극치**를 이룬다. <sup>[14]</sup>존 듀이는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체험을 미적 체험으로 간주한다. <sup>[15]</sup>물론 이러한 미적 체험은 현실적 삶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sup>[16]</sup>오히려 이것은 예술 작품 속에서 상이한 요소, 행동, 사건, 주체들이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

<sup>[17]</sup>이런 점에서 듀이는 예술의 신성화가 아니라, 예술의 세속화를 원한다. <sup>[18]</sup>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화 관계와 경험들은 이 세상 속에서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호 관계와 경험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미적 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sup>[19]</sup>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가 이러한 미적 체험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장을 만든다면, 이는 예술 작품을 넘어 삶

속에서도 미적 체험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2%]

4. ㉠~㉤의 사전적 의미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
- ② ㉡ :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 ③ ㉢ :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
- ④ ㉣ :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또는 그런 관계에 있다.
- ⑤ ㉤ :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취나 경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09월 평가원]

<sup>[1]</sup>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상계가 양주(楊朱)와 묵자(墨翟)의 사상에 ㉔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孟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孔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sup>[2]</sup>그는 공자의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비해 사회 혼란이 ㉕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특히 ‘의(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sup>[3]</sup>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sup>[4]</sup>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仁)’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하였다. <sup>[5]</sup>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sup>[6]</sup>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sup>[7]</sup>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sup>[8]</sup>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sup>[9]</sup>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sup>[10]</sup>나아가 그는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up>[11]</sup>또한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up>[12]</sup>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sup>[13]</sup>특히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sup>[14]</sup>그래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㉖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㉗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up>[15]</sup>맹자는 ‘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sup>[16]</sup>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일종의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sup>[17]</sup>그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sup>[18]</sup>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

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sup>[19]</sup>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㉘ **역설**하였다. <sup>[20]</sup>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sup>[21]</sup>나아가 그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21%]

5. ㉔~㉘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
- ② ㉕ : 책임이나 부담 등을 더 무겁게 함.
- ③ ㉖ :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킴.
- ④ ㉗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⑤ ㉘ :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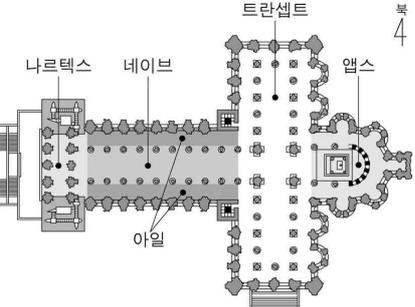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09월 평가원]

<sup>(1)</sup>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는 성당 건축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 <sup>(2)</sup>여러 시대에 걸쳐 유럽의 성당은 다양한 **㉠양식**으로 변화해 왔다. <sup>(3)</sup>하지만 그 기본은 바실리카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sup>(4)</sup>평면도상 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형식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는 시장이나 재판소와 같은 **㉡공공** 건축물에 쓰였던 것이다. <sup>(5)</sup>4세기경부터 출현한 바실리카식 성당은 이후 평면 형태의 부분적 변화를 겪으면서 중세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sup>(6)</sup>바실리카식 성당의 평면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동서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sup>(7)</sup>서쪽 끝 부분에는 일반인들의 출입구와 현관이 있는 나르텍스가 있다. <sup>(8)</sup>나르텍스를 지나면 일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네이브가 있고, 네이브의 양 옆에는 복도로 활용되는 아일이 붙어 있다. <sup>(9)</sup>동쪽 끝 부분에는 신성한 제단이 자리한 앱스가 있는데, 이곳은 오직 성직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sup>(10)</sup>이처럼 나르텍스로부터 네이브와 아일을 거쳐 앱스에 이르는 공간은 세속에서 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의 **㉣위계**를 보여 준다.

<sup>(11)</sup>시간이 흐르면서 성직자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sup>(12)</sup>이에 따라 바실리카식 성당은 앱스 앞을 가로지르는 남북 방향의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되어 열십자 모양의 건물이 되었다. <sup>(13)</sup>이때부터 건물은 더욱 웅대하고 화려해졌는데, 네이브의 폭도 넓어지고 나르텍스에서 앱스까지의 길이도 늘어났으며 건물의 높이도 높아졌다.

<sup>(14)</sup>절정기의 바실리카식 성당은 외부에서 보면 기둥이나 창등을 통해 하늘을 향한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준다. <sup>(15)</sup>이는 신에게 가까이 가려는 인간의 욕망이 표현된 것이다. <sup>(16)</sup>출입구 쪽의 외벽과 기둥에는 신이나 성인의 모습을 새겨 넣기도 하고, 실내의 벽과 천장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등을 담은 그림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 <sup>(17)</sup>특히 벽면에는 스테인드글라스로 구성된 커다란 창을 사람의 키보다 높게 설치하여 창을 통과한 빛이 다양한 색채로 건물 내부 공간에 풍부하게 퍼지도록 하였다. <sup>(18)</sup>이는 서양의 중세인들이 모든 미의 원천을 신이라고 보고 빛은 신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sup>(19)</sup>이처럼 바실리카식 성당은 기능적 공간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중심으로 조각, 회화, 공예 등이 한데 어우러져 당대의 미의식을 표현한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시대나 부류에 따라 각기 독특하게 지니는 문학, 예술 따위의 형식.
- ② ㉡ :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 ③ ㉢ : 사물의 진행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
- ④ ㉣ :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
- ⑤ ㉤ :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06월 평가원]

[16%]

<sup>[1]</sup>음악에서 연주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세기부터이다. <sup>[2]</sup>당시 유행하였던 영항미학에 따라 음악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sup>[3]</sup>여기서 내용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을 의미했는데, 이 시기의 연주는 그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sup>[4]</sup>따라서 작곡자들은 악곡 속에 그 감정들을 담아내었고, 연주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을 드러내기보다는 작품이 갖고 있는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sup>[5]</sup>즉 연주란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악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의미했으며, 당시에 청중들은 연주를 통하여 작곡자가 제시한 감정을 감상하였던 것이다.

<sup>[6]</sup>그러나 이러한 연주의 개념은 19세기에 들어 영항미학이 작품미학으로 전환되면서 바뀌게 된다. <sup>[7]</sup>작품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갖는 작품미학의 영향에 따라 작곡자들은 음악이 내용을 **②지시**하거나 표상하도록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오로지 음악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갖는 절대음악을 탄생시켰다. <sup>[8]</sup>작곡자들은 어떤 내용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동기, 악구, 악절, 주제의 발전과 반복 등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작곡함으로써 형식에 의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⑥추구**하게 된 것이다. <sup>[9]</sup>이렇게 음악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나 감정이 없어지자 연주자는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에 의한 아름다움의 의미들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려 했고, 이에 따라 연주는 해석으로 이해되었다. <sup>[10]</sup>실례로, 당시 베토벤 교향곡의 관현악 편성을 변형시켜 연주했던 바그너나 말러 등의 연주는 청중들에게 연주자가 해석한 작품을 **③감상**하게 한 것이었다.

<sup>[11]</sup>이러한 경향은 20세기에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구체화된다. <sup>[12]</sup>음악을 **④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음악에 **⑤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음악의 전문화 현상이 나타났다. <sup>[13]</sup>작곡자와 연주자가 뚜렷하게 분리되었고, 연주자 가운데에서도 장르나 시대 또는 작곡자에 따른 전문 영역이 세밀하게 구분되었다. <sup>[14]</sup>한 작품에 대해서도 수십 개의 음반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연주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다른 연주자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강조해야 했다. <sup>[15]</sup>이에 따라 연주자는 작품을 보다 더 다양하면서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sup>[16]</sup>이제 연주에서는 작품 자체의 충실한 해석에 의해 음악적 의미를 재구성했던 19세기와는 달리, 연주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sup>[17]</sup>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연주될 때, 작곡자의 작품은 연주자에 의해 재창조되며, 이때 청중에게 감상은 이중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7.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가리켜 보임.
- ② ㉡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③ ㉢ :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
- ④ ㉣ : 혼자 독차지하여 가짐.
- ⑤ ㉤ :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년 수능]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 **본위**에서 자신을 ㉡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며,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15%]

8.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 ② ㉡ :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 ③ ㉢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 ④ ㉣ :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 ⑤ ㉤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406월 평가원]

[14%]

9. ㉠~㉥의 사전적인 의미가 잘못된 것은?

노래방이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지금 새삼스럽게 청소년의 노래방 문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진부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래방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노래방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노래방에서 ‘방’은 두세 평 남짓한 ㉡**밀폐된** 공간이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 청소년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이 밀폐된 방을 찾아가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만의 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밀폐된 ‘방’을 나와 탁 트인 사회의 ‘광장’으로 나오면 청소년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 ‘광장’에는 기성세대의 문화만이 존재할 뿐 청소년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불순하고 병든 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각종 금기가 청소년을 ㉢**억압한다**.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광장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노래방으로 향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방 역시 청소년들만의 온전한 문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란 매우 어렵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노래를 다른 방식으로 부르기에, 언뜻 보면 기성세대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상업주의에 물든 기성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화도 상업 논리에 지배된다. 대중 음악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중파 방송에서 유행하는 십대 취향의 노래에서 잘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상업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그 문화에 ㉣**침윤되어** 가고 있다. 실험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청소년들이 상업화된 노래를 부르며 창의성을 상실해 가는 자리가 바로 노래방인 것이다.

자신들만의 문화 공간이 없어 노래방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상업적 문화에 물들어 가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화가 갖는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들이 어둡고 밀폐된 ‘방’에서 밝고 환한 ‘광장’으로 나와 자유롭게 그들만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자기 계발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 또한 보여 준다. 청소년은 기성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 빛깔에 물드는 스펀지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기성세대에 무조건적으로 대항하는 존재도 아니다. 청소년의 창의성이 한껏 발휘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면, 청소년 문화는 활성화되어 건강하게 꽃필 것이다. 이때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보호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밝고 건강한 문화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며, 청소년 문화는 우리 문화에 새로운 기운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① ㉠ 진부(陳腐)하다 : 사상, 표현, 행동 따위가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
- ② ㉡ 밀폐(密閉)되다 : 셀 틈이 없이 막히거나 닫혀 있다.
- ③ ㉢ 억압(抑壓)하다 :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다.
- ④ ㉣ 침윤(浸潤)되다 : 병 따위가 들어 시들다.
- ⑤ ㉤ 향유(享有)하다 : 누리어 가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년 수능]

<sup>[1]</sup>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 도모하는 것이다. <sup>[2]</sup>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sup>1)</sup>를 활용할 수 있다. <sup>[3]</sup>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sup>[4]</sup>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sup>[5]</sup>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sup>[6]</sup>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sup>[7]</sup>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sup>[8]</sup>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 야기할 수 있다. <sup>[9]</sup>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sup>[10]</sup>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sup>[11]</sup>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sup>[12]</sup>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up>[13]</sup>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sup>[14]</sup>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sup>[15]</sup>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sup>[16]</sup>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sup>[17]</sup>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sup>[18]</sup>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 조정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sup>[19]</sup>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1)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10%]

10.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 옴.
- ② ㉡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③ ㉢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④ ㉣ :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
- ⑤ ㉤ :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06월 평가원]

<sup>[1]</sup> 모든 사막은 뜨겁고 세찬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 불모지**일까? <sup>[2]</sup> 사막 중에는 열대 사막도 있지만,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과 같이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 <sup>[3]</sup>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sup>[4]</sup> 저위도의 사막은 북회귀선이나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지구의 **㉡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덥고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sup>[5]</sup> 북회귀선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열대 사막은 이러한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sup>[6]</sup>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미국 서부의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과 중국 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과정은 이와 다르다. <sup>[7]</sup>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 습윤**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 형성되었다. <sup>[8]</sup> 이는 수분을 함유한 공기가 높은 산맥을 넘어 반대쪽에 도달할 때 수분을 잃게 되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sup>[9]</sup> 한편,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양과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형성되었다. <sup>[10]</sup> 대륙 내부로의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공기 중의 수분 손실도 사막 형성의 한 원인인 것이다. <sup>[11]</sup> 이와 같이 사막은 대기 대순환, 지형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 된다.

<sup>[12]</sup> 흥미로운 것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인접한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에서 열대 습윤 환경에서 **㉣ 서식**하던 신제3기<sup>1)</sup>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sup>[13]</sup>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한때는 저지대의 습윤한 지역이었으며,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sup>[14]</sup>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맥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 융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티베트 고원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이 이론에 잘 들어맞는 듯 보였다. <sup>[15]</sup> 과학자들은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 뿐만 아니라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古地磁氣)<sup>2)</sup> 측정 결과를 통해, 이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과 함께 융기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sup>[16]</sup> 따라서 티베트 고원에 인접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근원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지각 변동이 관련되어 있다.

<sup>[17]</sup> 호주 대륙의 사막들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sup>[18]</sup> 약 5천만년 전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그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신제3기 : 신생대 제3기 후반.  
2) 고지자기 : 과거 지구 자기장

11. ㉠~㉤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매마른 땅.
- ② ㉡ : 천체의 표면을 둘러싼 기체.
- ③ ㉢ : 습기가 많은 느낌이 있음.
- ④ ㉣ : 길러서 번식하게 함.
- ⑤ ㉤ : 솟아올라 높아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년 수능]

<sup>[1]</sup>『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신문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sup>[2]</sup> 전통적으로 이 신문들은 후보의 정치적 신념, 소속 정당, 정책을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그것에 근접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해 왔다. <sup>[3]</sup>그러나 근래 들어 이 전통은 적잖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sup>[4]</sup>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또는 공정한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sup>[5]</sup>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sup>[6]</sup>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록펠러 후보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기여한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하지만, 지지 선언의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sup>[7]</sup>이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sup>[8]</sup>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sup>[9]</sup>예를 들면, ‘가’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 후보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sup>[10]</sup>한편 보강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sup>[11]</sup>가령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 <sup>[12]</sup>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p>[13]</sup>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sup>[14]</sup>후보 지지 선언이 언론의 공정성을 **①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sup>[15]</sup>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선점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up>[16]</sup>일부 정치 세력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sup>[17]</sup>신문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이다. <sup>[18]</sup>하지만 그로 인해 보도의 공정성을 **②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sup>[19]</sup>따라서 신문은 지지 후보의 **③ 표명**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지지 선언의 **④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⑤ 예언**을 길러야 할 것이다.

12.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
- ② ㉡: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함.
- ③ ㉢: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 ④ ㉣: 말이나 글 속에 들어 있는 뜻.
- ⑤ ㉤: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년 수능]

<sup>[1]</sup>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sup>[2]</sup>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sup>[3]</sup>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sup>[4]</sup>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 %와 40 %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 %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sup>[5]</sup>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sup>[6]</sup>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sup>[7]</sup>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sup>[8]</sup>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 **관건**이다. <sup>[9]</sup>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sup>[10]</sup>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sup>[11]</sup>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sup>[12]</sup>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sup>[13]</sup>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sup>[14]</sup>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sup>[15]</sup>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sup>[16]</sup>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sup>[17]</sup>

[4%]

13. ㉠~㉤의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 ① ㉠ : 사라져 없어지게 함.
- ② ㉡ :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 ③ ㉢ : 폐단으로 생기는 해.
- ④ ㉣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 ⑤ ㉤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 1) **답 ② 해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⑥의 '화신(化身)'은 '어떤 추상적인 특징이 구체화 또는 유형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애국의 화신'은 애국이라는 특징이 구체화된 대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오 ①** '파란만장'은 곡절과 시련이 많음을 나타낸다. **③ ⑥**는 탐구한다는 맥락적 의미를 지니므로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으로 그 의미가 파악된다. **④** '표리'는 '겉과 속'을 의미한다. **⑤** 뒤의 '과제'란 말이 있음을 고려하면 **⑥**가 '가장 높은 위'라는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 2) **답 ① 해 [어휘(사전적 의미 파악)]** '이의(異議)라는 말은 다른 의견이나 논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의를 달다/이의를 제기하다/이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십시오./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다음 안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등과 같이 사용된다.
- 3) **답 ② 해 [어휘어법(사전적 의미 이해)]** '집정'은 '정치상의 사무를 잡는 일, 혹은 그런 관직이나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집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군주가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오 ①** '화'는 '재앙'을 의미하고, '복'은 '복되고 영화로운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재앙과 복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개간'은 '황무지를 개간하다'의 형태로 많이 쓰는 말로서, 거친 땅이나 버려진 땅을 일구어 논밭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 '위상'은 '나라의 위상을 높이자' 등의 예로 활용되는 단어로서,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대상이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의미한다. **⑤** '농후'의 '농'은 '질은 정도'를 나타내고, '후'는 '두텁다'의 의미를 지닌 말이므로, 이는 '어떤 경향이나 기색이 두텁함'을 의미한다.
- 4) **답 ④ 해 [어휘의 사전적 의미]** '부단하다'는 주로 '부단한'의 형태로 쓰이며,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 5) **답 ① 해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①의 '경도'는 온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거나 열중하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은 '오인'의 의미이다.
- 6) **답 ④ 해 [어휘(사전적 의미 파악)]** '위계'는 '위치나 지위의 단계'라는 의미이다. 한편, '위엄'은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7) **답 ④ 해 [어휘어법(사전적 의미의 이해)]** '향유'는 '누리어 가짐'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인데, '혼자서 독차지하여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혼자서 독차지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은 '독점'이다. **오 ①** '지시(指示)'는 '가리켜 보임'이나 '일러서 시킴 또는 그 내용'을 의미한다. **②** 제시문에서 '추구'는 '추구(追求)'에 해당하는 말로 '목적물 이를 때까지 뒤쫓아 구함'을 의미한다. '이윤을 추구하다. 혹은 이상을 추구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이 밖에 한자가 다른 '추구'도 있는데, '추구(追究)'는 '근본을 캐어 들어가 연구함'을 의미하고, '추구(推究)'는 '이치로 미루어 생각해 밝힘'을 의미한다. **③** 제시문에서 쓰인 '감상'은 '감상(鑑賞)'으로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의 의미를 지닌다. 이 밖에 '감상(感想)'은 '마음에 느끼어 일어나는 생각'의 의미로 쓰이며, '감상(感傷)'은 '하찮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려 마음이 상함. 또는 그런 마음'의 의미로 쓰인다. **⑤** '종사(從事)'는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의 의미를 지닌다. 이 외에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함'의 의미도 있다.
- 8) **답 ③ 해 [사전적 의미 파악]** '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둠.'이다.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은 '선정'의 사전적 의미이다.
- 9) **답 ④ 해 [어휘의 사전적 의미]** '침윤'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서서히 물들어가는'이란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

침윤(浸潤) : ① 수분이 스며들어 젖음. [예]오랜 기간 비가 오니 건물 내벽이 침윤으로 얼룩이 졌다. ② 사상이나 분위기가 따위가 사람들에게 번져 나감. [예]퇴폐한 외래 풍조의 급격한 침윤 / 시험에 떨어진 나는 심한 절망감에 침윤을 당하였다. ③ (의학) 염증이 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지어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에 취입하는 일.

- 10) **답 ① 해 [어휘(사전적 의미)]** '도모'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의 의미이다.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옴'은 '도래(到來)'의 사전적 의미이다. **오 ②** '야기'는 '이제 와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불화의 야기일 뿐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③** '경향'은 '사람들은 기차를 탈 때 창가 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로 쓸 수 있다. **④** '조성'은 '현재 대규모 공업 단지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⑤** '확충'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 11) **답 ④ (사전적 의미의 파악)** ①의 '서식'은 '동물이 깃들여 살'을 의미한다. 그런데 ④에서는 '길러서 번식하게 함'이라고 그 의미를 풀어 놓았다. 이는 '양식(養殖)'에 해당하는 의미이다.
- 12) **답 ② 해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담보(擔保)'는 '말아서 보증함, 또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빚 준 사람이 그 빚을 대신할 수 있는 신용으로 제공하는 보장'의 의미를 지닌다.
- 13) **답 ① 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 '침해'는 '침범하여 해를 끼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라져 없어짐'은 '소멸(消滅)'의 의미이다.